

지난 7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공부와 세례받을 준비를 해 왔던 6명의 성도들이 이 날 세례식에 이어 성찬식에 참여 하는 기쁨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날 오랫동안 손에 묶었던 우상줄과 목거리등을 스스로 버렸던 피안 아주머니는 이 날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비로소 성도가 되어 기쁘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해 주어 더 감사하다고 고백 했습니다. 다음 세례식에는 남편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길 소원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후 성도들 모두 물놀이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례받은 6명의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학교 전통 무용 경연 대회에서 나란히 1등과 2등을 차지하여 상과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장기가 없어서 늘 의기 소침했던 품과 썩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날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주님안에서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태국 방콕 한인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선교로 사무엘 유치원에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2일 3박 4일간 건장한 10명의 청년들이 오랫동안 손 보지 못했던 사무엘 유치원을 청소와 도색과 교구, 교구장 정리 및 창문과 창틀, 전기선등 어려운 부분들을 새롭게 단장 해 주었습니다. 봉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사들에게 기도와 선물전달로 힘을 실어 주고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옷 선물 및 만들기, 한국 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감동을 주어 참 감사했습니다.

